
제21장

이동과 표류사료에 나타난 민족간의 접촉과 문화의 유연관계

-요나구니지마(与那國島)와 타이완

황즈웨이(黃智慧)

1. 해상길

타이완섬 내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계 민족과 주변 민족의 관계를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타이완의 도서적 특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반드시 해로를 거쳐서 왕래해 왔다는 사실이다. 바다의 지리적 위치로 보면 타이완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정확한 결절점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던 해상길에는 다양한 경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타이완 서쪽의 한민족(漢民族)과 타이완섬 간의 사람들의 이동과 왕래에 대해서 기록된 문헌은 매우 많지만, 그 외의 다른 경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타이완의 동북쪽에 위치한 바로 이웃인 류큐열도 사람들과 타이완 오스트로네시아어족민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는 민족사에서 여전히 공백의 페이지로 남아있다.

타이완의 동북방향에 위치하는 류큐열도는 크고 작은 1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본 규슈에서 타이완 사이에 남북으로 가늘고 긴 활 모양으로 늘어서 있다. 류큐열도 중에서 지리적으로 타이완과 가장 가까운 섬은 남부에 있는 야에야마제도(八重山諸島)로 11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도는 모두 타이페이 보다 남쪽에 위치한다. 야에야마제도 최서단은 요나구니지마(与那國島, 북위24도27부, 동위122도56부)로 타이완 동부의 이란(宜蘭)과의 거리는 110km밖에 되지 않는다. 야에야마군도와 타이완은 구로시오가 흐르는 유역에 속하며 자연 조건으로 볼 때 민족간의 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¹⁾ 이 과제를 풀어보고자 필자는 구두전승자료를 가지고 요나구니의 기원신화를 검토한 적이 있으며, 또한 답사자료로 20세기 이후의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 간의 왕래에 대해서 그 밀접한 관계를 논했던 적이 있다[黃智慧 1993, 1994]. 본고는 역사 속에 나타난 사람의 이동과 표류라는 시점에서 양자 간의 사회·문화적 관련성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시점을 갖는 것은 항해나 조선 등의 기술이 이미 상당히 발달했던 시대, 정사나 야사를 불문하고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간의 뚜렷한 의도를 가진 왕래에 대한 문헌기록을 본 적은 없지만²⁾ 의도적이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해상표류사건은 오키나와측의 사료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류큐왕국의 정치기능과 해상교통사, 사회생활 등의 연구에 아주 높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高良 1987: 12~13]. 그 가운데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간의 직접적인 표류기록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정리된 사료를 얻을 수 있었다.³⁾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는 몇 가지 사료를 찾게 되었고, 그 사료에 아주 풍부한 민족학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고의 목적은 오키나와측에 남아 있는

표류와 이동에 관한 세 편의 사료를 통하여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 섬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상호교류와 상호인식을 검토하고, 나아가 양자의 민족접촉과 문화의 유연관계(類緣關係)를 검토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양 지역간 지역민의 사회와 문화의 관련성을 논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계열(時系列)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동일한 시기의 상관사료를 비교 또는 대비시켰을 때 비로소 직접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타이완 섬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은 문자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한인(漢人)에 의한 역사기록도 적다. 그래서 타이완의 섭외사(涉外史)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타이완 이외의 사료를 차용하거나 해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요나구니지마도 문자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자를 가지지 못한 두 민족간의 왕래와 접촉에 대해서는 제3자가 남긴 문자기록을 실마리로 겨우 찾아 볼 수가 있다. 이 500년 동안 유럽은 전세계의 문자를 가지지 않은 대부분의 민족의 생활영역에 침투하여 대량의 기록을 남겼다. 인류학자는 이를 유럽의 탐험, 선교, 무역, 전쟁 등을 주제로 한 문헌에서 문자가 없는 무문자민족과 외부세계와의 왕래의 역사를 그려내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e.g. Wolf 1982, Sahlins 1985]. 이하, 본고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것들과 가깝고, 세 편의 사료의 주제 또한 15~19세기에 일어난 사람들의 표류와 이동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동중국해, 동아시아지역의 도서사회 간의 특유한 역사적 현상이다.

2. 조선의 제주도 표류자가 본 요나구니지마

15세기이전 요나구니지마에서 야에야마제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문자가 발달하지 못하여 남겨진 기록이 없다. 북방에 있는 류큐왕국은 당시 이 지역까지 통치체제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류큐왕국 관련사료의 기록은 이 지역까지 미치지 못했다⁴⁾.

그런데 1477년 제주도민 일행이 뜻하지 않은 조난으로 표류했던 요나구니지마섬을 포함한 당시의 류큐의 사회·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생활자의 견문 구술기록이 남아 있다. 이 필기기록은 조선왕조 『성종대왕실록』 제10권 속에 들어 있다.

1477년(성종8년) 2월 1일, 제주도에 살던 농민 김비의 등 일행 10명이 제주에서 진상하는 김귤류를 싣고 출항하는데 추자도 근해에서 그만 폭풍을 만나 14일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가 겨우 세 명만 요나구니지마 어민에게 구조되고 나머지는 익사하게 된다. 이 세 사람은 말로 의사소통은 할 수 없었지만, 요나구니지마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각 민가가 돌아가면서 돌봐줬다. 기록 속에는 「思念鄉土常常涕泣」(고향을 그리며 항상 울었다), 또 그곳 사람이 새 벼를 뽑아서 동쪽으로 불었는데, 그 뜻은 벼가 익으면 고향에 돌아가게 되리라는 내용 등이 있다. 결국 7월 여름이 오고 벼가 익어 올 무렵 남풍이 불어오자 그 바람을 이용하여 요나구니지마 사람들은 배에 술과 식량을싣고 비교적 큰 이리오모테지마섬(西表島)까지 그들을 호송해 주었고 며칠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요나구니지마로 돌아갔다. 그 후 조선인 표류자들은 이리오모테지마에서 다섯 달 정도 배를 기다리면서 하테루마지마(波照間島), 구

로시마(黒島), 아라구스쿠지마(新城島), 타라마지마(多良間島), 이라부지마(伊良部島), 미야코지마(宮古島)를 전전하다가 류큐왕국 선박을 타고 1478년 6월에 오키나와 본도 슈리왕부에 도착하여 환대를 받았다. 그 후 3개월 정도 슈리에 체재하는데, 류큐조정이 그 때 그 곳에 와 있던 교역선인 규슈하카타상선에 위탁하여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1479년 5월, 하카타를 경유하여 조선 염포에 도착하였고, 6월에는 관리들의 지시로 이 기록을 작성했다. 문체는 당시의 한문체를 사용했다.

표류했던 제주도민이 말하는 각 섬들의 견문록 중 가장 상세하게 기술된 것은 그들을 구조하여 물으로 끌어 올려 주고 가장 오랫동안 체재했던 요나구니지마에 대한 것이다.

섬의 이름은 윤이시마(閨伊是麼, 그곳 풍속에 섬을 일컬어 시마(是麼)라고 한다)라고 했다. 인가가 섬 주변을 빙 둘러 자리하고 있었고, 섬 둘레는 걸어서 이를 길이 될 듯 했다. 섬사람은 남녀 백 명 남짓으로 풀을 베어 바닷가에 초막을 지었는데, 거기에 우리들을 머물게 했다. 우리들이 제주를 출발한 뒤 큰 바람이 너울을 일으켜 파도가 이마 위를 지나고 물이 배 가운데 가득 차서 뱃전에서 침수되지 않은 것은 두어 판자뿐이었다. 김비의와 이정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펴냈고, 강무는 노(櫓)를 잡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배 멀미를 하여 누워 있어서 밥을 자을 수가 없었으므로 한 술 밥을 입에 넣지 못한 지가 무릇 열 나흘이었다. 윤이시마에 이르러 섬사람이 쌀죽과 마늘뿌리를 가져와서 먹여주었고 그날 저녁부터 비로소 쌀밥과 택주, 마른 생선을 차려줬다. 생선은 이름을 다 알 수 없었다. 그곳에 머문 지 7일, 인가로 거처를 옮겨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한 마을에서 식사대접이 끝나면 바로 다음 마을로 보내졌다. 한 달 뒤 우리들은 세 마을에 분산 거처했으며 마찬가지

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해 주었다. 대체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데 하루에 세 번이었다.

- 섬주민들의 용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 그 나라 풍속은 귀를 뚫어 푸른색의 작은 구슬을 꿰멘 귀걸이를 달았는데 길이가 두세 촌 정도 되었다. 또한 구슬을 꿰어 만든 목걸이를 서너 겹으로 감아서 늘어뜨린 길이가 한 척이 되었다. 남녀가 모두 동일 하나, 노인은 목걸이를 하지 않았다.
- 남녀 모두 맨발이며 신발이 없었다.
- 남자는 머리를 묶고 구부려 포개어서 모시 끈으로 감아 목 가장자리에 상투를 만들었으나, 망건은 쓰지 않았다. 수염이 길어 배꼽아래까지 내려왔다. 혹은 수염을 땋아서 상투를 몇 겹으로 둘렀다. 아낙네의 머리도 또한 길어 일어서면 바로 발뒤꿈치에 닿았고 짧은 사람도 무릎까지 닿았다. 머리 위에서 둥글게 돌려 가로로 나무빗을 귀밀머리에 꽂았다.
- 술, 숟가락, 젓가락, 사발, 자기나 질그릇은 없었다. 흙을 뭉쳐서 술을 만들어 햇빛에 내놓아 말리고, 벗짚으로 불을 지핀다. 밥을 대엿새 짓고 나면 곧 깨져버렸다.
- 쌀을 전용하고, 비록 조(粟)가 있더라도 심기를 즐기지 아니하였다.
- 밥은 대나무 상자에 담아서 손으로 뭉쳐 덩어리를 만드는데 주먹 크기만 했다. 밥상은 없고 작은 나무 책상을 사용하여 각자 앞에 놓았다. 밥을 먹을 때에는 한 부녀자가 상자를 맡아서 이를 나누어 주며 사람마다 한 덩어리씩인데, 먼저 나뭇잎을 손바닥 가운데 놓고 밥 덩어리를 그 나뭇잎 위에 얹어 놓고 먹으며, 그 나뭇잎은 연잎만 했다. 한 덩어리를 다 먹으면 또 한 덩어리를 나누어 주어 세 덩어리로 한도를 삼으나, 먹을 수 있는 자에게 덩어리 수를 계산하지 않고 다 먹으면 더 주었다.
- 소금과 간장은 없고 바닷물에 채소를 넣어 국을 만들며, 그릇은 박을 사용하거나 혹은 나무를 파서 만들기도 하였다.
- 술은 탁주는 있으나 청주는 없었다. 물에 불린 쌀을 여자들이 입에

넣어 씹어서 죽같이 만든 뒤에 나무통에서 발효하지만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다. 많이 마시면 조금 취하고 술잔은 표주박을 사용하며, 무릇 술을 마실 때에는 사람들이 한 개의 표주박을 가지고 와서 마시기도 한다. 각자 주량에 맞춰 마시고 술을 주고받는 예의는 따로 없으며 더 마실 수 있는 자에게는 첨작한다. 그 술은 매우 묽어, 빚은 뒤 3, 4일이면 익고 오래 되면 시어서 마실 수 없다. 나물 한 가지로 안주를 하고, 마른 물고기를 쓰기도 하며, 혹은 신선한 물고기를 잘게 잘라서 회를 만들고 마늘과 채소를 곁들이기도 했다.

– 쌀을 불려 디딜방아에 짓고 이를 둥글게 뭉쳐 떡을 만드는데 종려나무 잎의 크기와 같이 하고, 종려나무 잎으로 싸고 짚으로 묶어서 삶아 먹었다.

– 거처는 모두 한방을 만들어 쓰고, 안방이 따로 없고 창문이 없다. 앞면은 추녀가 조금 높이 들리고 뒷면에는 처마가 땅에 드리워져 있다. 대개 띠를 쓰고 기와가 없으며, 밖에는 올타리가 없고 잠자리는 나무평상을 사용하는데 이불과 요는 없고 깔개로 부들자리만 쓴다. 사는 집 앞에 따로 누고(樓庫)를 만들어 거두어들인 벼를 쌓아 두었다.

– 모자나 허리띠는 없고, 더우면 종려나무 잎으로 삿갓 모양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스님 갓과 같았다.

– 삼(麻)·목면(木綿)이 없고 누에도 치지 않았으며, 오직 모시[苧]를 짜서 베를 만들고 옷을 짓는데 직령(直領)과 같지만 옷깃과 주름이 없고 소매는 짧고 넓었으며 남청색으로 염색을 하였다. 속옷은 흰 베 세 폭을 써서 볼기(臀)에 둘러 매었다. 부녀자의 옷도 마찬가지였으나 다만 속치마를 입었고, 속옷은 없으며 치마도 푸른빛 물을 들였다.

– 집에는 쥐가 있었고, 소와 닭, 고양이를 기른다. 소고기와 닭고기를 먹지 않고 죽으면 바로 묻었다. 우리들이 “소고기와 닭고기는 먹을 수 있으므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지만, 섬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이를 비웃었다.

- 산에는 재목(材木)이 많지만, 잡스런 짐승은 없었다.
- 날짐승으로는 오직 비둘기와 황작(黃雀)뿐이었다.
- 곤충(昆蟲)으로는 거북, 뱀, 두꺼비, 개구리, 모기, 파리, 박쥐, 벌, 나비, 사마귀, 잠자리, 지네, 지렁이, 개똥벌레, 게 등이 있었다.
- 철을 다루어 불리지만 쟁기는 만들지 않고 작은 삽으로 밭을 갈고 풀을 제거하여 조를 심었다. 논은 12월 사이에 소를 이용하여 밟고 씨를 뿌리며, 정월 사이에 모를 옮기지만 풀을 베지 않는다, 2월이 되면 벼가 바야흐로 무성하여 높이가 1척쯤 되고, 4월에 무르익는데, 이른 벼는 4월에 벼베기를 마치고 늦은 벼는 5월에 바야흐로 추수를 마친다. 벼 수확 뒤에는 뿌리에서 다시 자라나 처음보다 더욱 무성하여 7~8월에 수확 한다. 수확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근신하는데, 말을 하더라도 소리를 크게 하지 아니하고 입을 오므려 휘파람을 불지 않았다. 혹 풀잎을 맙아서 불면 막대기로 이를 금하다가 수확을 한 뒤에야 작은 피리를 부는데 소리가 매우 미세했다. 한번 수확한 벼는 이삭을 이어묶기 하여 누고(樓庫)에 두는데, 대나무 줄기로 이삭을 뽑아내고 디딜방아로 절구질을 했다.
- 풀과 벼를 베는 데에는 낫을 쓰고 쪼개거나 찍는 데에는 도끼를 사용하며, 또 작은 칼은 있지만 활과 화살이나 날이 달린 창은 없으며, 사람들은 작은 창을 갖고 있는데 집안에서도 한시도 놓지를 않았다.
-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 앉혀서 관을 언덕 굴바위 밑에 두는데, 흙으로 묻지 않았으며, 만약 언덕의 굴바위가 넓으면 대여섯 개의 관을 함께 두었다.
- 그 지역은 따뜻하여 겨울에도 서리와 눈이 내리지 않고, 풀과 나무가 낙엽지지 않으며 또 얼음도 없다. 섬사람들은 흙웃 둘만 입고 여름에는 하나만 입는데 남녀가 같았다.
- 채소로는 마늘, 가지, 참외, 토란, 생강이 있는데, 가지는 줄기 높이가 3, 4척이나 되고 한 번 심으면 자손에게 전해져도 결실이 처음과

같고, 너무 늙으면 가운데를 썩어 베어버리는데 또 움이 나서 열매를 맷었다.

- 나무는 검은매화, 뽕나무, 대나무가 있다.
- 과실로는 청귤과 작은 밤이 있으며, 풀은 사계절 꽃이 피었다.
- 등불이나 촛불이 없고, 밤이면 대나무를 묶어서 밝게 비추었다.
- 집에는 뒷간이 없고 들에다 그냥 늑는다.
- 배를 짤 때에는 바디와 복을 사용하는데 모양은 우리나라와 같았고, 그 외의 다른 기계는 달랐으며 승수(升數)와 추세(麤細)도 우리나라와 같았다.
- 땅을 파서 작은 우물을 만들고 물을 길어 올릴 때에는 표주박과 병을 사용했다.
- 배는 키와 둑은 있고 노는 없으므로 순풍에 둑을 달 뿐이었다.
- 도적이 없고 길에서 떨어진 것을 줍지 않으며, 서로 꾸짖거나 큰 소리로 싸우지 아니하며, 어린아이를 매우 아껴 비록 아이가 자자러지게 울더라도 손을 대어 때리지 않았다.
- 추장이 없고 문자(文字)를 알지 못했다. 우리들은 저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 곳에 있다 보니 조금은 그 말하는 바를 알게 되었다. 우리들이 고향을 그리며 항상 눈물을 흘리자 그 섬사람이 새 벼줄기를 뽑아서 옛 벼와 비교해 보이고는 동쪽을 향하여 불었는데, 그 뜻은 대개 새 벼가 옛 벼처럼 익을 때면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대략 그곳에서 여섯 번의 초하루와 여섯 번의 그믐이 지나 남풍이 불기를 기다려 섬사람 13명과 우리들은 그들이 마련한 식량과 술안주를 싣고 같이 한 배를 타서 가기를 하루하고 한나절 만에 한 섬에 이르렀다.

섬 이름은 소내시마였다. 略

(『조선왕조실록』이케다니, 우치다, 다카세 편역 2005 a b)

사료에 저술되어 있듯이 요나구니지마는 조선의 표류자가 구조된

장소이며, 또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나구니지마의 묘사가 가장 상세하며 전 기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또 제주도의 표류자는 기억을 더듬어 요나구니지마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저술하였다. 오키나와 남부에 있는 그 외의 여러 섬에 대한 견문 역시 그 기재를 토대로 특징적인 점을 기술하고 있으며, 간혹 “윤이시마와 나머지는 마찬가지”라든가 “대략 윤이시마와 같다”라고 글을 끝맺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체장식에 대해서 표류자에 의한 이리오모테지마의 기술은 “부녀자는 코의 양쪽을 뚫어 조그만 검은 나무를 꽂고 있으며……(중략) 발에는 퀘어 멘 파란 구슬을 감고 있다”, 하테루마지마에서는 “남녀는 귀를 뚫어 조그만 구슬을 매달고 구슬장식을 머리에 걸치고 있다”, 아라구스쿠지마에서는 “허리와 정강이 부분에 파란 구슬을 감는 관습이 있는데 남녀가 모두 같다”라는 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 ‘파란 구슬’을 중심으로 한 신체장식은 미야코지마 이남의 것이고 오키나와본섬 이북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생활과 농작물의 기술에서는 야에야마군도에 있는 섬들과 요나구니지마가 거의 같다고 언급하면서도 작물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섬들은 대부분 논농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리오모테지마에서는 “조는 쌀의 3분의 1쯤 되었다”, 하테루마지마에서는 “기장, 조, 보리가 있는데 논은 없어서 쌀은 다른 섬에서 무역해 온다”라고 하였고, 조의 파종 시기도 “10월에 씨를 뿌려 2, 3월에 수확하고, 이것을 다시 뿌리면 7, 8월에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아라구스쿠지마, 구로시마도 하테루마지마와 마찬가지로 조만 재배했고, 쌀은 이리오모테지마(이 섬은 야에야마군도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섬)와의 무역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요나구니지마는 야에야마군도에서도 아주

소량의 쌀을 자급했던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요나구니지마에는 작은 산이나 소(沼)가 있어 지하수원이 풍부 하므로 다른 작은 섬들보다 벼를 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쪽으로 가면 미야코군도에 속하는 다라마지마라는 섬이 있다. 그 곳에는 “기장, 조, 보리가 있고 벼는 없다”, 이라부지마에는 “기장, 조, 보리가 있고 벼도 있다. 벼는 보리의 10분의 1…(중략)…로 술을 빚는 쌀누룩으로 사용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야코지마에 도착하자 “벼, 기장, 조, 보리가 있고”, 술을 빚을 때 쌀누룩을 사용하며, “밥을 짓는 데에는 쇠솥을 사용하는데, 밭은 없고 가마와 닮았으며 류큐국에서 무역한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어, 미야코지마가 당시 왕조가 있는 북쪽의 오키나와지마와 이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야코지마 일행은 제주도민을 류큐왕부의 슈리까지 호송했다. 류큐국 국왕은 호송인을 포상하여 각각 청홍면포를 하사하고 술과 밥을 후하게 대접하였다. 미야코지마 사람은 “하루종일 취해 있었다”, “하사 받은 면포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했으며, 그들은 한 달을 머물다가 미야코지마로 돌아갔다. 제주도민은 왕부(王府)가 있었던 슈리에서 야에야마제도나 미야코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거대한 왕부의 조직을 보았고, 시장에서는 당나라사람, 남만국(南蠻國)사람, 일본인이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당시의 왕(쇼우신왕尚真王)은 어려서 어머니가 섭정을 하였다는 내용 및 그들이 본 세시연중의례 등 의 기록은 당시의 류큐왕국 관련사료와의 고증에서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자료로서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이 사료가 15세기 류큐열도의 사회와 문화 양상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한적(漢籍)에 기술되어 있는 정보에서 우리들은 당시의 각 섬들의 사회와 문화가 상호 연동했던 모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 사람에 의한 요나구니지마의 기술이 가장 많고 옷, 장식, 두발, 식사, 먹는 물, 술 만들기, 옷감 만들기, 조류, 곤충, 짐승, 작물을 심는 법, 농기구, 배, 금기, 매장, 건축 등의 생활에 대해 섬세하게 관찰했다. 이들 기록은 요나구니지마로 대표되는 야에지마군도의 일반적인 생활형태를 설명하는 동시에 ‘문화’의 유형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유형은 오히려 남방민족에 비교적 가깝다. (후술)

그들은 철을 다루기는 해도 기술은 발달하지 못했다. 비교적 대형인 철기에 대해서는 북방에서 남방으로의 무역에 의존해야 했다. 미야코지마는 이미 쇠냄비에 밥을 짓고 있었으나 요나구니지마에서는 간단한 토키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미야코지마는 이미 식자(識字)가 이루어져 류큐왕부의 속지(屬地)가 되어 있었으나 요나구니지마에서는 아직 무문자사회였다. 류큐측 사료의 기재를 참조해보면[나카소네(仲宗根) 1993 참조] 남부의 미야코지마에서 야에야마군도는 1390년에 슈리왕부에 최초의 조공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양측의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류큐왕은 20명의 충명한 젊은이를 뽑아 왕부에 3년간 살면서 말을 배우게 한 뒤 쌍방의 왕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방의 사료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16세기 초두에 이시카키지마에서 요나구니지마까지 류큐왕국에 대한 반란 폭동사건이 발생하여 왕부는 결국 군대로 이를 평정했다. 그러므로 이 표류자의 기록은 요나구니지마가 왕국에 정복되기 전의 기록으로 남부 여러 섬과 오키나와본섬의 사회적 문화적 유형에

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사료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각 섬의 철기, 문자, 면포 등 국가의 ‘문명’형태⁵⁾의 발전은 사회·문화의 발전과 상호 연동된 모습으로 볼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루트를 잡았던 것 같다.

이들 사료에 대해 비교의 관점으로 필자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15세기 이전의 요나구니지마로 대표되는 남부 여러 섬은 앞서 말한 문화유형에 속했지만, 그것이 타이완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사람들의 사회나 문화와 유연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오키나와본섬을 대표로 하는 북방계통의 문명형태는 왜 계속적으로 남하, 또는 서진하여 타이완 섬까지 전해지지 않았는지 하는 점이다. 후자의 문제는 본고에서도 나중에 논의를 계속하겠다.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시기 타이완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사회·문화에 관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비교 대조할 방법은 없지만, 이러한 직접적인 대조는 아니더라도 필자는 비교적 그에 가까운 지역과 근접한 시대의 타이완의 동해안 민족의 사회·문화적 기록, 또는 민족식물학, 고고학의 분석에 따라 어느 정도 의미있는 고찰이 가능하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타이완 동해안의 민족적 집단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네덜란드인, 스페인인, 한인(漢人)을 불문하고 비교 가능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지극히 우연으로 보이는 1803년 타이완 동해안의 슈구뤼안(秀姑巒) 계곡에 표착했던 일본 훗카이도의 어선 ‘順吉丸’ 선장(유일한 생환자)의 귀중한 구술기록이 남아있다.⁶⁾ 본 논문에서는 1939년 대북제국대학(台北帝国大学) 도서관 타이완애서회가 재편집하여 『享和三年癸亥漂流臺灣島之記』라고 제목을 붙인 사료에 의거했음을 밝힌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민족적 집단은 동해안의 카바

라인과 슈구뤼안계곡의 아미인과 아타얄인이다. 이 배의 어민이 슈구뤼안에 머물렀던 기간은 4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었기에 그곳의 사회·문화의 묘사는 매우 상세했다. 그 구술기록에 따르면 그곳의 남녀는 모두 장발로 머리에 저마(苧麻)로 끈 띠를 둘렀고 문자는 없었으며 수장도 없고 가옥(그림으로 보면 1실밖에 없다)외에 고상식(高床式)창고가 있다. 변소는 없고 띠로 지붕을 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묘사는 요나구니지마와 흡사하다.

기물을 보면 그곳에서는 날붙이, 솔, 도끼, 화승총 등의 금속기, 그리고 한인(漢人)과의 무역에서 얻은 자기와 아타얄인과의 무역에서 얻은 활이 있었고, 직접 만든 토배(土杯)의 일종을 제외한 흙으로 빚은 냄비는 인근 촌락에서 만든 것이다. 바꿔 말하면 18~19세기의 외부와의 접촉 후의 당시 타이완 동해안에서는 철 단야(鍛冶)는 없었고 대신 모두 무역으로 얻고 있는⁷⁾ 것으로 보아 근린부족과의 무역도 제법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쌀밥 등의 주식에 관한 기록 중, 식사를 할 때는 대바구니 안에 넣어 손으로 쥐어 식사를 한다고 한 부분은 조선인이 기록한 요나구니지마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 “밥을 대나무 그릇에 담는다……”라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그 밖에 아미족의 술 빚는 법이 요나구니지마의 구작주와 비슷하다. 그곳에서는 조를 찐 후 “집안에 있는 사람을 총동원하여 세심하게 입을 헹구게 하고 모두 모여 이것을 씹는다” 그 후 물을 담아놓은 나무통에 넣어 열흘 남짓 두어 술을 만든다. 또한 요나구니지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쌀을 절구로 찧어 떡을 만든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슈구뤼안계곡에서는 조, 벼를 심고, 사이에는 고구마, 토란을 심어 먹었다. 당시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얘기도 나온다. “조만 재배했을 경우, 조를 베고

나면 한 해가 저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다. 또 “벼도 논이 없어 밭에서 경작하는데 초작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심어 5월에 수확하고, 바로 재식하여 9~10월경에 익으면 거두어들인다. 계다가 군장이 없으니 공물도 없어 수확한 것은 모두 자신들의 몫이다”, 이 기록에서는 벼를 심는 시기에 대해 요나구니지마와 상당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봉건제도를 실시했던 에도시대의 어민의 시선으로 보면 그곳에는 군주에 의한 통치제도가 없고 공납 등의 사회제도도 없었으므로 특별히 이러한 기재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1803년의 표류기록 이후, 20세기 초의 타이완총독부 임시 타이완구관조사회가 출판한 보고서에는 아미인의 기록이 확실하게 나와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벼(발벼), 조, 기장, 고구마 등을 심었는데,⁸⁾ 그 중 발벼는 2기작(二期作)이다. 음력 12월에 씨를 뿌려 팽이로 땅을 일궈 5월에 수확하고, 곧바로 오래된 그루터기 옆에 씨를 뿌려 10월에 수확한다. 조도 마찬가지로 음력 12월에 씨를 뿌려 팽이로 땅을 일궈 5월에는 수확을 시작하고, 수확 후에는 집 안팎 또는 고상식창고(高床式倉庫)에 보관한다[타이완총독부 임시타이완구관조사회, 1915: 32~35]. 그 밖에 조를 수확할 때 약간의 금기가 있다[타이완총독부 임시타이완구관조사회, 1913: 10~16, 1915: 173]. 이들 기록에서 그곳의 벼, 조의 경작시기와 농구의 사용이 야에지마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벼농사 문제는 민족식물학자인 사사키 코메(佐々木高明)가 요나구니지마의 벼농사의 변천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 비교한 바가 있다[사사키 1984: 29~66]. 그는 아미족에 대한 표류기록이나 타이완총독부의 조사 기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식물학적분석의 과정에서 요나구니지마의 벼농사형태와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벼농사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 제주도의 표류자 기록에는 요나구니지마에서는 벼와 조가 동시에 존재하고, 이리오모테에서는 명확하게 벼 7할, 조 3할이라는 비율까지 나와 있다. 또 하테루마지마, 아라구스쿠지마에서는 예전에는 조가 주식이었고 쌀은 무역으로 얻고 있었다. 표류기록에서 벼의 재배시기에 대해서 사사키는 다른 관계사료에서 중세 그곳의 벼농사는 겨울벼 유형 한 종류로, 요나구니지마와 마찬가지로 ‘12월 파종, 4월 수확’이라는 벼농사 형태였다고 고증하고 있다. 이것은 타이완 섬과 그 주변지역의 겨울에 습기가 많고 여름이 건조하다는 기후에 적응한 작물이라는 것이다.⁹⁾ 또한 이 겨울벼의 농사력과 조의 경작력은 실제로 매우 유사하여, 기본적으로는 ‘조농사’주체의 잡곡재배농법의 계통으로 거기에서 발전해 온 ‘벼농사’형태이다. 또 야에야마군도 외 도서의 조농사력과 수확시기의 금기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부농족布農族(마부치 토이치 馬淵東一, 1937), 아미족雅美族(奧田彧 등, 1941), 루카이족魯凱族(사사키, 1976)의 조농사 과정과 많이 닮았다.¹⁰⁾ 즉 사사키는 이 시기의 요나구니지마의 벼의 품종과 근대 이후 오키나와북부에서 전파되어 온 벼의 품종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남쪽 여러 민족들의 조농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겨울벼농사형 품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농기구에서 볼 때, 사사키는 ‘가래(小鋤)’를 이용한 농경방법은 동남아시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굴봉(掘棒)농경문화라고 하면서 조와 감자류의 경작 및 그에 수반되는 어로에 적합하다고 하고 있다[사사키, 1973: 51~87]. 이 점에 대해 앞서 언급한 아미족의 팽이 경작은 같은 유형의 농구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또 와타베 타다요(渡部忠世)가 야에야마군도의 재래벼 품종을 사용한

페늘반응에 의한 분석결과[와타베 1984: 67~7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할마해라섬, 말루쿠제도, 슬라웨시섬, 순다열도의 벼의 측정결과와 같았다고 한다. 타이완산지 밭벼의 품종분석결과가 없기는 하나, 1928년 이소 에이키치(磯永吉)의 보고에 따르면 타이완산지 원주민이 재배하는 소위 ‘남양계’의 수륙겸용 벼품종과 그가 조사한 야에야마군도의 재래종은 같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야에야마군도의 재래품종은 남방에서 북상하여 온 품종으로 타이완산지의 벼와 같고, 순다열도에서 직접 온 것이 아니라 타이완을 경유하여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전술한 민족식물학자의 벼의 연구와 야에야마지역의 고고학자의 의견은 일치한다[나카소네, 1992]. 고고학의 발굴조사 결과 이미 알려진 사실로 일본이북의 조몬문화, 야요이문화의 남쪽한계는 오키나와본섬까지이다. 남부의 미야코군도와 야에야마군도는 지층과 출토물 모두 야에야마군도의 것이 미야코지마의 것보다 오래되었고, 선사시대의 문화의 원류에 대한 논의에서는 북쪽의 미야코지마는 남쪽의 야에야마군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작문화 유형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남쪽에서 북쪽의 루트를 택한 경향이 비교적 강하다. 이와 같은 발전의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북에서 남으로 가는 문명의 발전방향과는 완전히 반대이다.

전술한 추론 및 1803년의 슈구뤼안 계곡의 표류기록에서 20세기 초기의 해당지역의 기록, 그리고 1477년 제주도민이 묘사하는 요나구니지마의 사회·문화의 형태로 볼 때, 타이완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두 가지의 표류기록에는 시간차가 커서 그 사이에 사회·문화의 변천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외래문화의 강렬한 충격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연조건에 생활양식을 최대한 적응

시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았다. 더욱이 19세기말, 일본의 민족학자가 타이완에서 원주민을 조사했던 가장 초기의 조사에서도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을 재확인시켜준다. 예를 들면 이노 카노리(伊能嘉矩)와 아와노 덴노조(粟野伝之丞)가 기록한 부농족, 쪄우족의 입으로 씹어 술을 만드는 양조법이 있다[이노·아와노 1900: 122]. 또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도 란위의 아미족의 가옥의 지붕이 앞 7부, 뒤 3부의 비율로 한 쪽이 길고 초가이며 창고는 별도로 되어 있는 주거형태였던 점, 그리고 부녀자는 머리가 길어 삼베끈으로 머리 위에 묶어 올려 대나무꼬챙이를 꽂고 신체장식은 귀고리나 손발에 장신구를 하고 목에는 다양한 색깔의 목걸이를 둘렀다는 점 등을 기록하고 있다[토리이 1976(1902): 284~328]. 타이완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사회제도와 문화는 19세기에는 매우 분화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구술기록에서 그것이 타이완의 어느 민족집단과 특히 비슷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해안의 민족사 전체로 볼 때, 이 사료가 15세기 후기의 동타이완 여러 민족의 발전의 문화유형에 참고가 된다는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3. 야에야마군도의 공문서에 나타나는 표류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야에야마 군도는 15세기 들어 겨우 류큐왕국의 지배판도에 들어갔다. 북방의 류큐왕국이 이룩한 역사는 그다지 길지 않았고, 14세기경 각지의 호족을 통일하여 완성했다. 류큐왕국은 이 500년의 동아시아 역사에서 지극히 특수한 정치체제를 보여준다. 1372

년 류큐의 명제국에 대한 조공 이후 류큐는 형식적으로는 명나라의 속국이었지만, 명과 류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호혜적인 무역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내정의 지배는 없었다. 명목상으로는 류큐왕국이 명나라의 책봉을 받고 명나라의 서체 등을 채용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1609년 북방의 가고시마현 사쓰마번(薩摩藩)이 거느리는 군대에 류큐왕국은 굴복당하고 그 후 사쓰마번은 관리를 수도에 상주시켜 류큐왕국의 무역을 독점하고 류큐를 사쓰마의 실질적인 속국으로 만들었다. 즉, 정치체제의 속성에 있어서 그 종주국의 통치형태에는 허와 실이 있는데, 류큐왕국은 이중의 종주국이 있는 유사독립국가이고 사쓰마번은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와 외교를 조종하는 종주국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남부의 야에야마군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데, 명나라의 힘은 시종일관 야에야마군도에는 미치지 않았다. 류큐왕국으로부터 엄밀한 통치를 받았고, 또한 류큐의 위에 군림한 사쓰마번의 감시하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중통치의 상황은 19세기 후기 일본의 메이지 정부의 류큐왕국체제를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류큐왕부는 행정체제상으로는 1628년에 처음으로 미야코지마에 관리를 상주시키고, 이어 1632년에는 야에야마에 상주시켰다. 그 후 1879년 오키나와현이 설치되기까지 250년 간, 야에야마군도를 통치하는 관리는 슈리에서 파견하여 공무처리와 공조(貢租)의 확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사쓰마번에 대한 공조의 상납도 담당했다.¹¹⁾

그리고 이들은 외국선박의 접안을 관리하기도 했는데, 야에야마군도가 명과 청, 그 밖의 외국선박의 무역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감시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곳에 주류하고 있는 행정기구는 해마다 야

에야마군도에서 일어난 각종 사무를 상부에 보고해야 했다. 이러한 사무기록인 『八重山島年來記』는 17세기~19세기의 사회동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八重山島年來記』의 문체는 편년기사 형식으로(연대의 대부분은 명·청의 황제연호와 간지(干支)로 류큐왕국연호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서기로 환산하였다) 사쓰마번이 사용하고 있던 고문서체로 쓰여져 있다.¹²⁾ 상세한 기사는 1629년~1817년까지의 188년간 합계 463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기사를 보면, 내용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틀에 박힌 슈리의 관리와 사쓰마 관리의 인사명부, 공조(貢租)의 징세정황, 당시의 천재지변이나 유행하는 질병 등의 기재가 가장 많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66건의 선박이 그곳에 도착했거나 섬 밖으로 나갔다는 표류에 관한 기록으로 상당량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 류큐와 사쓰마가 선박의 표류사건을 어느 정도 중시했었는지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들 사료에서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의 표류기록에 대해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시계열에 따라 열거해 보았다.

1648년

一. 하테루마지마(波照間島) 히라타마을(平田村) 백성 남녀 사오십 명이 오오하테루마(大波照間)라는 남쪽 섬으로 도망갔다. 이 때문에 하테루마 마을의 마츠시게(松茂)씨와 하테루마 슈이우후야쿠(首里大屋子: 류큐왕국의 지방행정을 담당했던 중앙관)인 守恒씨는 이시카키(石垣) 폐친(親雲上: 류큐왕국의 사족의 칭호)의 배를 타 상경했지만, 징계면직을 당한다. 그들은 돌아오던 중, 남쪽섬에 표착하게 되고, 이시카키 폐친을 포함한 배를 탔던 몇 사람은 다음해 봄에 요나구니지마에 도착, 그곳에

서 섬으로 돌아왔다.

1659년

一. 요나구니지마에서 네덜란드선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아토미 시마부쿠로(跡見島袋) 폐친은 징계면직을 당한다. 다음 해 여름에 귀국했다.

一. 하바나(波場名) 마을에 사는 미야료(宮良) 폐친(親雲上)은 류큐에서 돌아오던 중 남쪽 섬에 표착하고 다음해 4월에 요나구니지마에 도착, 그곳에서 섬으로 돌아왔다.

1731년

一. 이시카키(石垣) 폐친이 배를 타고 돌아올 때, 계라마(慶良間)·토카시키(渡嘉敷) 항구 밖에서 폭풍을 만나 타이완에 표착하는데, 다음 해 봄에 복건까지 데려다 준다. 그 해 7월 7일, 중국배를 빌려 타 나하(那霸)에 귀향했다. 배에 타고 있던 몇 명이 천연두를 앓고 있어서 오우노야마(산)에 격리시켜 병이 나은 후, 8월 나하에 갔다가 10월 그곳 배로 돌아왔다.

위의 기록 세 항목 중에 앞의 두 항목에서 눈을 끄는 것은 ‘남쪽 섬’이란 대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시대를 감안한다면 사쓰마번의 지배하에 들어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로, 사쓰마번이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을 견디지 못해 주민들이 결탁하여 ‘남쪽 섬’으로 집단으로 도망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하테루마지마는 야에야마군도의 최남단의 섬이고, 다른 야에야마군도의 큰 섬들은 관리의 감시하에 있었기에 ‘남쪽 섬’은 아무래도 하테루마지마보다 큰 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쪽 섬’이란 바로 타이완 섬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1659년의 표류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귀국할 때 모두 다음 해 봄에 요나구니지마를 경유하여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섬과 요나구니지마가 아주 근접해 있지 않는 한 요나구니지마에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요나구니지마와 가장 가까운 큰 섬이라고 하면 지리상 그것은 타이완 섬이다. 또 동력이 없는 시대라 봄 여름을 기다렸다가(농력 4월) 겨우 바람을 이용하여 돌아갈 수가 있었다. 한 발짝 더 이야기를 전전시켜, 만일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 섬 사이에 있는 정도의 상호인식과 이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연히 관리가 두 사람 모두 요나구니지마를 거쳐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게다가 오랜 세월 ‘남쪽 섬’에서 안전하게 머물렀고 현지의 주민에게 살해되는 일도 없었다.

실제로 타이완 동해안의 원주민족에게 외래의 표류자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가끔 듣는다. 이노 카노리(伊能嘉矩)는 『台灣蕃政志』에 1628년 스페인함선 카르바할(Carbajal)호가 베이난(卑南) 부근의 ‘미개지’에 표착하여 선원들이 살해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 1632년 일반적인 캄보디아선박이 타이완의 지룽(基隆)을 출발하여 루손섬의 마닐라에 가는 도중, 태풍을 만나 지금의 이란(宜蘭) 일대에 표착하여 선원 50명이 카바란(噶瑪蘭族)인에게 전부 살해당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이렇게 본다면 같은 시기에 야에야마군도의 사람들이 표류했던 사건이나 그들이 남방의 여러 섬 사람들에게 살해된 기록이 왜 없는 것인지, 오히려 이상할 따름이다. 확증은 없다고 해도 야에야마와 타이완의 주민들만이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우호적인 관계라는 게 아니라면 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야에야마 섬들에 전해 내려오는 기원신화 중에 요나구니지마의 신화에 따르면 ‘사람은

남방에서 이 땅에 들어왔다' [이케마, 1959]고 한다. 나중에 이 섬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안 그들은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구두전승에는 명확한 시기의 기록은 없다. 이 전설에서는 요나구니지마의 지리공간적 인식 속에 남쪽섬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만약에 타이완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증명해본다면, 우리들은 1648년과 1659년 타이완의 서부가 네덜란드 통치하에 있었을 무렵, 두 번째 기록 속에 아란타(阿蘭陀: 네덜란드) 선박이 파손되었다는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네덜란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네덜란드 행정의 힘은 아직 타이완 섬 동부에는 미치지 못했었다. 게다가 소위 '타이완'이라는 명사가 사용된 것도 1684년 청나라 강희시대에 정식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복건성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세 번째 기록은 이미 옹정연간(雍正年間) 시기로, 야에야마군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타이완은 이미 하나의 이름을 가진 섬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타이완은 타이난을 가리키고 있고, 당시의 인도의 관례에 따르면, 먼저 복건에 보내 신분을 증명 받은 후 류큐왕부에 신병을 귀속하게 된다. 이 문장은 1713년 기록으로 『八重山島年來記』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타이완'의 이름이 있는 문장이다. 이후 타이완과의 상호왕래의 기록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는다.

이 책 속의 다른 요나구니지마의 표류기록은 다음 몇 가지가 있는데 요약해 두겠다.

1714년 야에야마군도의 관리가 요나구니지마에서 광동의 신춘(新村)에 표착

1719년 일본 기슈(紀州) 사람이 배를 파손하여 요나구니지마에 표착
 1737년 요나구니지마의 관리가 이시카키지마에서 요나구니지마에 가던 중 북부의 구메지마에 표착

1740년 야에지마의 관리가 이시카키지마에서 류큐왕부에 가던 중 요나구니지마에 표착

1744년 요나구니지마에서 출항한 宇良이라는 관리가 행방불명

1753년 요나구니지마에서 공납미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 표류한 끝에 가고시마에 도착

1771년 이유는 모르지만 요나구니지마의 작은 배에 탄 하급관리 10명이 구로시마에 표착

1816년 류큐왕부에서 청나라에 조공으로 바쳤던 어린사슴가죽을 실은 배가 요나구니지마에 표착

이상이 『八重山島年來記』에서 발췌한 요나구니지마 관련의 표류사건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은 야에야마군도의 관청이 조사한 자료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의 대부분은 관리의 표류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해야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신분이 없는 일반 어민이나 농민의 불의의 표류사건 등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며, 아마도 너무 많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 확실치는 않지만, 해금정책(海禁政策)이 시행되던 가운데 밀무역이나 위장표류 등은 이러한 기록 속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하마시타, 1993: 119~120]. 마지막으로 표류의 방향에서 보면 다양한 방향이 있으며 정상적인 경로는 없다[고쿠분, 1978: 6~10, 廖風德, 1988: 205~208]. 이 사실은 동해(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이 해역의 조류와 기후의 불안정함 외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도 16세기 이전의

목적이 있는 이동 또는 목적이 없는 표류의 빈도는 우리들의 이해의 범위를 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해상의 길’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문화의 교류는 우리들의 상상 이상일 것이다.

4. 야에야마군도 당국에 의한 대외표류선박의 단속 규정

전술한 바와 같이 류큐왕국은 형식상 명·청에 조공하고 있었지만 실제의 목적은 국제무역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류큐는 동남아시아나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거기다 자신들의 특산물을 덧붙여 조공명목으로 복건 등과 무역을 하고 있었다. 명·청 양국 또한 ‘책봉’의 형식적 명목으로 류큐에 특사를 파견하여 무역을 하고 있었다. 류큐는 조공과 책봉에 필요한 100인승의 대형선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명나라에 부탁해서 만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이러한 특정선을 ‘진공선(進貢船)’이라 칭하고 다른 ‘당선(唐船)’과는 구별하였다. 14~15세기 명나라의 책봉체제, 조공무역, 해금정책 속에서 류큐는 동아시아의 중계지로 번영했었다[曹永和, 1988: 621~622]. 그러나 동아시아의 이러한 국제무역 형태는 사쓰마번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결국 1609년 사쓰마번은 류큐왕부를 정식으로 투항시켰고, 그 후 바로 류쿠는 대외무역권을 넘겨줘야 했다. 사쓰마번은 진공선 이외의 외국선박과 류큐의 무역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류큐의 대중무역품을 사쓰마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중간이익마저 쟁겼다. 명, 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쓰마의 식민통치는 중국과 그 밖의 외국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중국의 ‘책봉사’가 슈리에 올 때마다 사쓰마의 관리는

시골에서 반년이나 몸을 숨기고 있었다.

17~19세기 사쓰마번은 교묘하게 류큐왕국의 내정과 외교를 통제하면서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사쓰마번은 그 이익을 에도의 도쿠가와막부에 바쳐야만 했고 내정과 외교는 막부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 때문에 1630년대에 에도막부의 쇄국체제가 확립된 후, 사쓰마번에 속한 류큐왕국도 에도의 쇄국지시를 집행하여 사쓰마번 사람들의 해외도 항과 청나라, 조선, 네덜란드 이외의 외국선적의 도래를 금지했다.

쇄국체제의 최대목적은 에도막부가 대외무역을 통제하여 점유하려는 것 외에도 유럽으로부터의 그리스도교 전도를 엄격하게 단속하려는 것이었다[아라노 1987: 163~226 참조]. 류큐왕국에 실시한 이러한 쇄국체제는 왕부를 동원하여 행정기구 전체가 해양방위를 감시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외국선박의 표류사건이 많은 야에야마군도에는 특별히 관리를 파견하여 이국선에 대한 사무까지 담당하게 했다. 초기에는 사쓰마번이 직접 병사를 주둔시켜 밀무역을 엄격하게 단속했던 일까지 있었다.

쇄국체제하의 상세한 집행과정에서 사쓰마는 류큐정부를 통해 여러 가지 금령과 지시를 반포하는데, 이것은 표류선박, 내항선박에 관한 재외주둔단체의 단속규정 속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언급할 필자가 분석하려고 하는 마지막 1편은 타이완에 관한 사료로, 류큐왕부의 파견으로 야에야마군도에 주류하고 있는 어떤 단체의 외국선박 단속규정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야에야마군도의 주민과 외부세계(타이완 섬 포함)와의 접촉의 형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외래선박은 ‘진공·접공선’, ‘당선’, ‘조선선’, ‘이국선’, ‘일본 외 타국령의 선박’, ‘남만선(南蛮船: 포르투갈인·스페인선)’, ‘아란타선(阿蘭陀船: 네

델란드선)'으로 나눌 수 있고 당시 류큐왕국의 동아시아 국제정치에서의 미묘한 위치 때문에 취항의 목적은 통상 또는 표착·파손이며, 여려가지 복잡한 규정에 의해 처리되었다[이토카즈 1988 참조].

이 사료의 모든 명칭은 『進貢·接貢船·唐人通船·朝鮮人乘船、日本他領人乘船、各漂着並破船之時、八重山在番々役勤職帳』이라 하여 다양한 국적 및 그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으며, 총 20건 있다. 오늘 날 남아있는 것은 1813년 수초본(手抄本)의 기록으로 이 정책은 17세기 부터 이미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 유사한 단속과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이시카 키시사 편찬실이 사가(私家)문서를 정리한 사료[이시카키시 총무부 시사 편찬실 1993: 1~51]에 의거하여 분석했다. 그 가운데 2가지 규정이 직접적으로 '고사(高砂, 대만-역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에도막부가 타이완 섬에 대해 사용하고 있던 호칭이다.

이 두 가지 규정의 명칭은 「唐人乘船、朝鮮船漂着仕候時之公事」 및 「唐人乘船、朝鮮船破損之時勤之次第」이다. 이 사료의 각 규정사항에서 관리의 표류사건에 대한 경계자세를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원인으로 표류하여 그곳에 도착했는지, 몇 명 타고 있는지, 화물은 어느 정도인지 등, 내선의 상세한 기록 외에 야에야마의 관리가 표착한 자를 상륙시키는 것을 엄금하고, 어쩔 수 없이 상륙시켰다 하더라도 관리에게 감시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또한 표류자와 지역주민이 접촉하는 것, 나아가 교역하는 것 등을 엄중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물(唐物)'에 관한 밀무역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담당 관리는 골치를 썩으며 단속을 강화했다.¹⁴⁾ 이 때문에 '당선'이나 '조선

선'이 보급을 필요로 했을 경우에도 그다지 좋은 대우는 없었고 당국은 이들 배가 복원되면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기를 바랐다.

'고사(高砂, 대만)'에서 온 '당선'에 대한 두 개의 문장(두 내용은 같음)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시하고 있는데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고사(高砂)를 출발한 당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교도 승객이 있으면 특히 그들이 포교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그리스도교도가 소지하고 있는 도구, 인상서(人相書, 범죄를 체포하기 위해 외모의 특징을 적어 돌리는 글-역주) 등은 철저하게 조사한다. 인상서에는 남만선(南蠻船)의 그림 뒤에 붙여 두고 소지하고 있는 도구도 뒤쪽에 기록한다.

이 규정은 타이완 선박을 '당선'으로 별도 분류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당선, 조선선의 처리사항 중 유일하게 그리스도교의 포교 금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 밖에는 남만선과 네덜란드선의 표류선 처리규정에만 그리스도교 유입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이 점에서 당시의 야에야마군도 당국은 타이완에서 오는 배는 그리스도교를 비밀리에 선교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교도의 물품을 밀무역하는 중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필자는 다른 문헌에서 대만선박이 이처럼 단속을 받았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이런 인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16세기말~17세기 이후 유럽시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무역의 요구를 나날이 강화하여 명, 일본, 조선의 해금정책 속에서 타이완은 동중국해의 새로운 무역중계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

다. 물론 포르투갈선은 일본과, 명나라선은 필리핀과, 스페인선은 멕시코와 필리핀 사이를 왕래하는 가운데, 타이완은 바로 이러한 항로의 중계지점에 있었다[曹永和, 1988b: 625]. 네덜란드인, 스페인인도 또한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식민지 경영을 추진해 나갔다. 식민지주의와 더불어 또 하나의 종교신앙상의 목적으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 포교는 가장 적극적이었다.

스페인은 그 때까지 끊임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타이완에 파견하고 있었다. 예수회의 선교사들이 타이완에 와서 학교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한다는 목적 외에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할 선교사 양성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가장 유명한 도미니크회의 선교사 Jacinto Esquivel은 1629년 타이완에 학교를 세웠다. 그는 일본에 잠입하여 선교하고 싶어서 1630년 ‘일서사전’을 편찬하였고, 또한 타이완 단수이(淡水) 지역 토착민 언어사전도 편찬했다. 1633년 그는 일본에 몰래 들어오려고 당선을 탔지만 선원에게 살해되고 사체는 해안가에 버려졌다[나카무라, 1951: 25~61]. 이 사건보다 조금 앞서 루손섬의 마닐라에서 내항한 스페인의 신부가 이시카키지마에 상륙했으나 그를 초대한 그곳 사람들은 왕부의 노여움을 사 유배되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더욱이 10년 후 그는 유배지에서 사쓰마번에게 화형에 처해지고 동생까지 화형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운명이 되었다. 이 사건은 전술의 『八重山島年來記』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곳의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바꿔 말하면 야에야마 주민이 당선에 잠입하거나 그리스도교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타이완의 당선에 그리스도교도가 잠입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전술했던 바와 같은 사건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그 밖에 18세기 초, 프랑스 선교사 De Mailla(중국어명 馮秉正)가 타이완에 지도를 만들려고 왔을 때 관찰한 바에 따르면 타이완에는 이미 그리스도교도가 있는 것 같았으며, 그 그리스도교는 한인(漢人)이 아닌 원주민이었다[方豪, 1969]. 그렇지만 이것은 17세기에 네덜란드인이 신강(新港), 타이난(台南)에서 선교했을 때 남아있던 신도였을 것이다 [伊能 1904: 55~56]. 그들은 일본에 선교할 의지는 없었다. 나카무라 다카시(中村孝志)는 17세기 중엽 이후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타이완에서 세력을 철수하여 물러나면서 타이완의 그리스도교는 200년의 암흑기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다. 그것은 19세기 이후의 영국 장로파 교회가 다시 타이완에 들어가 포교를 시작할 때까지 이어졌다[曹永和 1988a: 59~60]. 같은 시기(19세기 중엽 이후) 구미열강은 배와 대포를 앞세워 부단하게 류큐왕국과의 통상과 선교를 요구하며 에도의 통치하에 있는 쇄국체제를 무너뜨리려 하였다[大熊 1971 참조].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1803년의 수초본 사료 이후에는 ‘이국선’에 관한 새로운 단속규정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그때까지의 단속규정에서 나타나는 사실로 보았을 때, 쇄국체제하에서 야에야마군도는 해양방위의 요충지이다. 그러한 이유로 공문서사료에는 야에야마군도와 타이완 섬의 의도적인 왕래기록이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5. 환타이완 동해의 도서민족사 재고

지금까지 서술해 온 것을 다음과 같이 총괄하겠다. 본고에서는 집단의 표류와 이동에 관한 성격이 다른 3가지 사료에 근거하여, 전근대의

타이완과 야에야마군도의 민족접촉 및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분석했다. 먼저 첫 번째 사료인 제주도의 표류자의 기록은 15세기 류큐의 남북 두 곳의 문화권의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요나구니지마를 대표로 하는 야에야마군도가 지닌 남방민족의 사회·문화적 기층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생활기술, 농업·생태적 관점에서 논증하고자 할 때에는 아주 밀접한 타이완 섬과의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 또는 15세기 당시의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 섬은 같은 유형의 사회·문화발전의 역사적 과정에 있었다고 봐도 좋다.

두 번째의 야에야마군도의 공문서 편년사기록에서 필자는 17~18세기 초, 만일 '남쪽의 섬'이 타이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야에야마군도 또는 요나구니지마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타이완은 아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이웃과 마찬가지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망칠 수 있는 장소였다. 조금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타이완은 배가 표류했을 때 잠시 머무를 커다란 섬으로 조류와 계절풍을 기다렸다가 다시 둑을 올려 돌아올 수 있는 곳이었다.

아마 18~19세기에는 이러한 형태의 온건한 관계는 기록으로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 세 가지 사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경계했던 긴장관계이다. 사쓰마번의 세력범위의 통제하에 있던 류큐왕국, 그리고 그러한 사쓰마번 역시 에도막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류큐왕국에게 통제받고 있던 야에야마군도는 동아시아 호상열도의 사회질서 속에서는 변경 중의 변경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야에야마군도와 타이완 사이에 왕래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국의 통제가 있던 상황에서는 사적인 왕래나 밀무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타이완의 기록

속에서만 나타나, 타이완 섬으로의 내항은 결국 당국의 주목대상이 되었고 당국은 범죄를 특별히 경계하게 되었다. 타이완의 내부사료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이 점에 대해 그리 주의 깊게 보아오지는 않았다. 우리들처럼 외부에서의 관점과 기록이 오히려 타이완 동부 외해의 역사과정의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술했던 세 가지의 야에야마군도에 관한 표류기록에 나타난 다양한 정보로 본다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타이완 동쪽 해상의 각 섬들 사이에서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목적이 없는 표류의 빈도는 우리들이 아는 범위를 넘는 것이다. 이러한 ‘해상의 길’에 있었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교류는 또한 우리들의 상상 범위를 초월하는 것일지 모른다.¹⁵⁾

본고에서 분석해 온 표류에 관한 사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환동해(환동중국해)의 국가들이 15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야기한 해상에서의 복잡한 상호관계의 일부로, 이것이 동타이완해의 야에야마군도의 주민들과 타이완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과의 민족의 접촉과 왕래, 그리고 사회·문화의 유연적 관계와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이 지역의 민족사 연구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중국형의 화이질서와 일본형의 화이질서는 양쪽 다 이 도서지역의 집단의 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이 구역의 무문자민족과 유문자민족 사이에 역사적 발전의 차이를 낳게 했다. 어떻게 동타이완해의 도서민족사를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한정된 표류사료에서의 문헌연구는 당연히 불충분하다. 필자는 고고학, 민족식물학, 유전학, 언어학 및 사회·문화의 비교 등 연구의 모든 분야가 앞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길이며, 학술계가 노력해 나갈 가치가 있는 연구과제라는

것을 통감하는 바이다.¹⁶⁾

· 역사후기 ·

본고는 이나무라 쓰토무(稻村務)가 黃智慧 1997 「人群漂流移動史料中的民族接觸與文化類緣關係」『考古人類學刊』52, 19~41쪽 臺北 國立臺灣大學 人類學系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이를 안행순(安幸順)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본고와 황즈웨이 2010년 「이동과 표류사료에 나타난 민족간의 접촉과 문화의 유연관계 -요나구니지마와 타이완-」『地理歷史人類學論集』1호(류큐대학 법문학부 인간과학과 기요) (稻村務訳) 43~61페이지는 이미 게재되었던 것이다. 본서의 기획상 중요한 논문이라는 이유로 다시 게재하게 되었다. 다만 앞서 번역했던 『朝鮮王朝實錄』에 관한 사료를 위한 역주 등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료만 남겼다. 또한 보다 읽기 쉽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과감히 의역한 곳도 많다. 사료학적 관심이 있는 분은 『地理歷史人類學論集』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 주석 ◦

- 1) 구로시오문화권의 가설은 일본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통이 있다. 구로시오문화모임(1980) 참조.
- 2) 마부치 토이치(馬淵東一)는 과거 이 문제에 대해 한탄한 적이 있다. [마부치 1974(1952): 485~492]
- 3) 역사학자 梁嘉彬은 항해기록(표류기록 포함)을 이용하여 수서(隋書)에 나오는 '流求' 가 현재의 타이완이 아니라 류큐열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梁嘉彬, 1965]
- 4) 류큐왕국의 가장 빠른 정사(正史)기록은 1650년 쇼 쇼켄(尙象賢)의 『중산세감(中山世鑑)』이다.
- 5) 필자의 '문명'의 시각은 고든 차일드(V. Gordon Childe)의 고전적 정의에 입각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유럽은 신석기혁명과 도시혁명 후 문명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기준은 정주농경과 기축시육, 정주 외에 도시, 직업분화, 사회계층, 세제, 공공건축, 문자의 확립을 포함하고 있다[차일드 1957: 341~345 참조].
- 6) '順吉丸' 일행은 9명이었다. 1802년 11월, 하코다테를 출발하여 예정대로라면 옷카이치시(四日市)에 짐을 운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강풍을 만나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남방으로 떠내려갔다. 타이완동부해안에 표류했을 때, 처음에 카바라인을 만났고 그 후 슈구루안 계곡(지금의 파강커우(大港口))의 애미인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나 결국 文助라고 하는 선장만이 살아남았다. 4년 후 그는 那嶼, 枋寮, 凤山, 台南, 廈門을 전전하였다. 그 후 1811년, 나카사키로 돌아왔고 관청으로부터 상세하게 조사를 받았

- 다. 秦貞廉이 이 기록을 책으로 편집했다[秦貞廉 1939 참조].
- 7) 표류기 중에는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한인이 등장하고 있어, 그들의 생활형태는 그 지역 사람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상인은 램프를 사용하고 글을 읽을 수 있으나 그 지역 사람들은 횃불을 사용했다[秦貞廉, 1939: 14, 34].
 - 8) 동서는 논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논벼의 파종은 비교적 늦은, 음력 11월 중순에 뿌려 5,6월에 수확한다. 곧바로 5월에 다시 씨를 뿌려 10월에 수확한다[타이완총독부 임시타이완구관조사회, 1915: 30~32참조].
 - 9) 劉益昌씨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타이완 섬의 동부와 북부만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 10) 1910년대의 타이완총독부의 조사기록도 또한 “북부지구의 타이야족(泰雅族)의 조, 기장은 겨울에 씨를 뿌려 여름에 수확을 한다. 밭벼는 초여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중앙연구원 민족학연구소 역, 1996: 102~103 참조]
 - 11) 사쓰마번의 악세는 ‘인두세(人頭稅)’라고 불리어,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녀는 모두 과세대상이며 노동을 시켰다. 과세의 내용은 주로 쌀, 조, 직물이었다. 야에야마의 인두세제도는 1879년 폐번치현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1902년에 겨우 개정되었다[미야라(宮良) 1975: 33~38 참조].
 - 12) 『八重山島年來記』는 몇 가지 사본이 있다. 본고는 오키나와현사 편집소편(1987)에 의거하고 있다. [오키나와현사 편집소편 1987: 280 참조]
 - 13) 이노伊能(1904:55~56) 참조, 또 근대사에서 유명한 1874년 류큐 미야코지마주민이 모란사(牡丹社)사건에 대해서는 후지이(1992)를 참조.
 - 14) 『唐物締方之儀ニ付勤之次第』 6페이지를 보자. 또한 조문 가운데 류큐의 관리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했다. 만일 당선(唐船) 또는 외국선이 그곳에 표착하여 일본의 배가 부근에 있을 때는 신속하게 해안으로 가 표류선이 보이지 않도록 숨겨야만 한다. 해안부근의 표류선에서는 일본노래를 부르는 것, 일본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 일본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이시가키시총무부시사편찬실 1993:1~51].
 - 15) 전술했던 秦貞廉(1939)의 훗카이도 사람이 슈구뤼안(秀姑巒)계곡에 표착했을 때의 기록에는 그곳의 아미인은 한 장의 사슴기죽을 침구로 하고 있었고 표류자들은 그들에게 말린 벗짚으로 거리를 짜도록 가르쳤다고 한다[秦貞廉, 1939: 29].
 - 16) 본고는 1996년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앙연구원이 주최한 ‘Symposia of Culture as well as Biological Affinities among Indigeneous People in Taiwan and Southeast Asia’를 위해 준비했던 논문을 고쳐 쓴 것이다. 회의에 참가한 분들 및 ‘平埔工作會’가 귀중한 의견을 주셨다. 또한 石垣博孝, 名城泰雄, 許賢瑤, 林昌華씨는 관련문헌 등에 대해 많이 지도해 주셨다.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